시판가공식품의 영양성분 및 영양강조 표시 실태 조사 연구

차연수 · 이순재[1] · 양향숙 · 안은미 · 노정옥*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1]

본 연구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공식품의 표시내용 중 영양표시를 통해 영양 강화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4년 6월~2004년 10월까지 전주와 대구지역 대형마트와, 할인매장, 슈퍼마켓 등에서 일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가공품 총 2,432가지를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영양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강보조식품과 특수 영양식품은 제외하였다. 조사제품의 제품명, 식품유형, 원료재료명, 영양성분표시, 기타 성분표시 및 함량(mg), 영양강조표시, 제품형태, 보관방법, 제조사 등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제품의 유형분류는 2004년도 식품공전상 식품군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영양성분 표시를 한 제품은 영양성분표시단위(예 : 우유 1,000ml당)에 따른 영양성분 및 함량을 함께 조사하였다. 또한 영양강조 표시를 한 제품은 제품 포장에 표시된 서술 형태 등의 표시용어와 강조영양성분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영양성분표시는 총 2,432개 조사제품 중 27.5%에 해당되는 670개 가공식품에서 표시되었다. 식품유형별로 보면 면류가 71.6%로 가장 많이 표시되었고 그다음은 유가공품 62.0%, 당류 43.3%, 음료류 37.8%, 두부류 또는 묵류 32.3%, 스낵류 3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 영양표시빈도를 보면 유가공품내에서는 저지방우유가 100%, 발효유류 82.4%, 일반우유 71.4%였고 당류에서는 설탕 100%, 고당류 33.3%이었다. 음료류는 두유류가 65.8%이었고 분말음료 및 과실 · 채소류 음료는 각각 39.7%와 34.2%이었다. 그러나 다류의 경우 커피 이외의 제품과 인삼제품류, 김치 · 절임식품, 주류 및 건포류에서는 영양성분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기타 가공식품류에서도 코코아 가공품류, 팝콘용 옥수수 가공품만 영양 성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조사결과 현재 시판되고 있는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가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영양표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관련 업체의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 담당자 : 노정옥
* Tel : (063) 270-4135
* 휴대전화 : 011-9257-1964
* Fax : (063) 270-3854
* E-mail : jorho@chonbuk.ac.kr